

# 금주의 농사메모

기 간 2022년 10월 2일 ~ 2022년 10월 8일

제 공 경상남도농업기술원

내

용

벼는 수확 후 용도에 따라 건조 및 저장에 유념하고, 맥류과종은 지역, 맥종, 재배양식에 따라 다르므로 과종량 및 과종시기를 정한다. 배추는 적절한 비료 및 물주기로 관리하고, 과실은 품질을 높이기 위해 수확작업 시 수확방법 및 유의점을 알아두고, 환절기 축산농가의 전기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른 전기시설 사전 점검에 노력한다.

## 1. 벼농사

- 벼 수확 후 물벼는 수분함량이 22~25% 정도이므로 온도변화에 따른 호흡량을 억제할 수 있는 안정 수분함량(약 15%)까지 건조시킨다.
- 벼는 높은 온도에서 말리면 품질이 나빠지므로 일반용은 45~50℃에서, 종자용은 40℃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말리도록 한다. 벼 건조 시 동할립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초기 수분함량이 높을수록 송풍 온도를 낮게 해주고, 건조온도를 55℃ 이상 높이면 완전미 함량이 낮아지고 동할미가 증가하여 쌀 품질이 낮아진다.
- 저장 기간 중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벼의 수분함량 15%, 저장온도 10~15℃, 상대습도 70~80% 정도 유지 시켜주고 저온저장고에 톤백으로 적재할 때는 가능한 냉각공기에 접촉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을 두며 벽체에 발생하는 결로가 톤백에 닿지 않도록 저장한다.

## 2. 밭작물보

- 보리·밀 등 맥류는 월동 전에 본 잎 5~6매가 확보되어야 안전 월동이 가능하므로 지역별로 적기에 과종하도록 한다. 맥류의 과종기는 북부지역은 9월 하순~10월 상순, 중부지역 10월 상중순, 남부지역은 10월 중하순이며 보리·밀의 적정 과종량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만파할 때는 증량 과종한다. 보리는 맥종별, 지역별, 논밭별 재배양식에 따라 10a당 13~20kg이고 세조파 재배는 10~14kg을 과종하며, 밀은 10a당 휴립광산파는 16~20kg이고 세조파 재배는 10~13kg을 과종한다.
- 과종 전에 반드시 종자소독을 하여 종자로 전염되는 이삭마름병, 붉

은곰팡이병, 깜부기병, 줄무늬병 등 병해를 예방하고 보리 과종 후 3~4일 이내에 토양처리 제초 적용약제를 살포하여 잡초를 방제하도록 한다.

### 3. 채 소

- 배추는 아주심기 후 15일 간격으로 4회 정도 비료주기하며 생육이 부진한 포장은 요소 0.2%액(20L에 40g)을 잎에 뿌려주고 생육중기부터 염화칼슘 0.3%액(20L에 60g), 붕산 0.2%액을 2~3회 잎에 뿌려준다. 결구가 시작된 포장은 하루에 10a당 200L의 물이 필요하므로 인공관수 실시하고 수분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시기는 과종 후 40~50일 경인 결구초기이다.
- 갑작스런 추위를 대비해 부직포나 비닐을 준비하고 기상 예보에 따라 덮어주거나, 수확기가 된 무와 배추는 서둘러 수확하고 노균병, 균핵병, 진딧물, 나방류, 벼룩잎벌레 등 예찰 및 방제에 노력한다.

### 4. 과 수

- 과실 수확은 하루 중 온도가 높은 때를 피하고 온도가 낮을 때 수확하여 과실의 양분 소모를 줄이도록 한다.
- 수확기에 비가 내릴 경우에는 병해 감염 우려가 있으니 비가 그친 후 수확하도록 하고 과실은 한 나무에서도 익는 시기가 다르므로 한번에 수확을 하지 말고 익음 정도에 따라 2~3회 나누어 수확하여 품질을 높이도록 한다.
- 과실은 껍질이 매우 연하여 수확할 때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부딪쳐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과실의 꼭지가 빠지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저장력이 약해지므로 작업할 때 주의하도록 한다.

### 5. 축 산

- 환절기에는 가축의 온도 관리를 위하여 전기 사용량이 높아지므로, 전열기 및 전기시설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축사 화재예방 및 안전 환경관리에 신경써야 한다. 농장 규모에 맞는 전력을 사용하고 유사시 대비 비상발전기를 확보하며 정기적인 안전 점검으로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한다. 축사 내 곳곳에 소화기 비치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축사 화재 등 재해대비 보험에 가입한다.